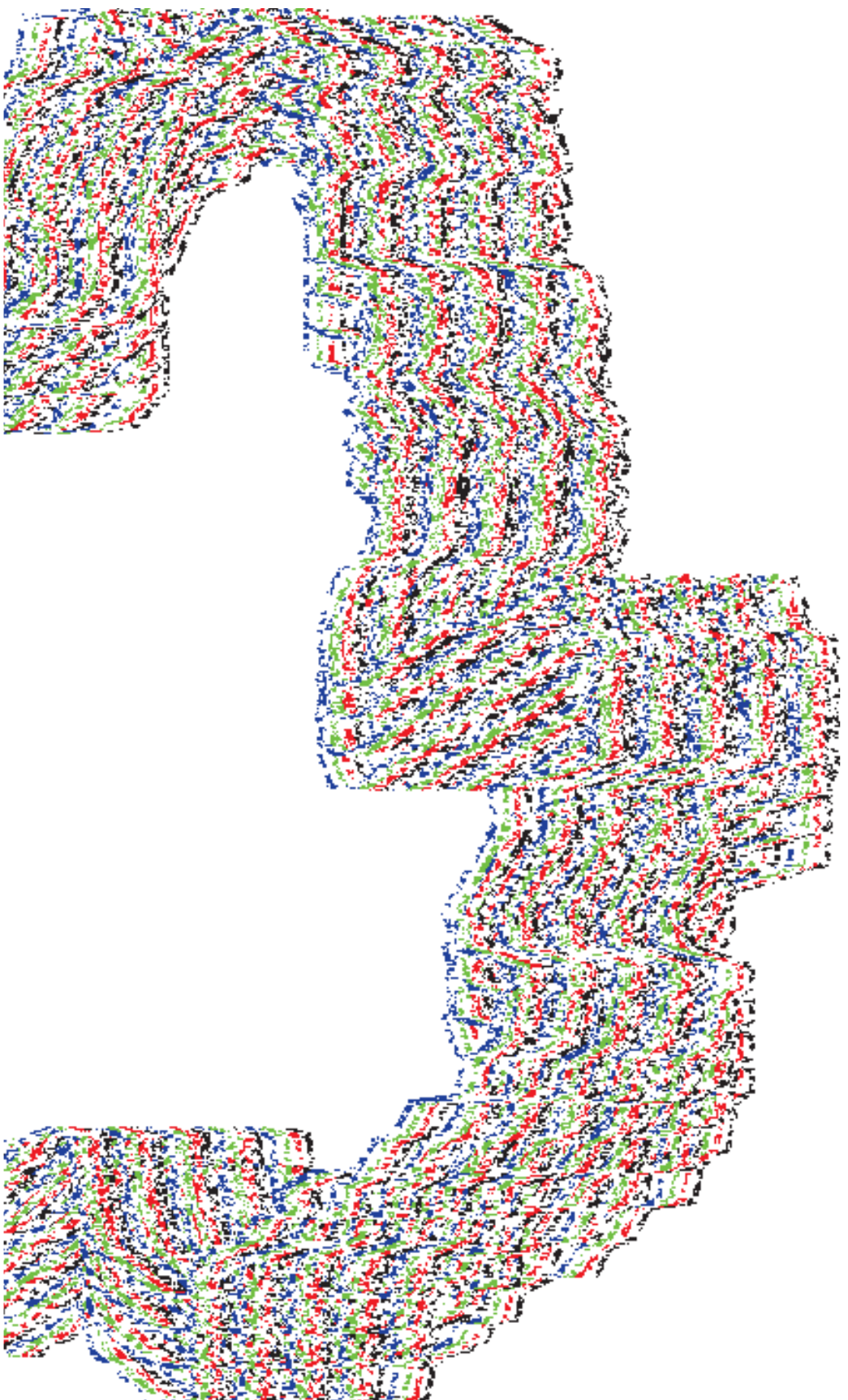


트러스트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Trust  
Media City Seou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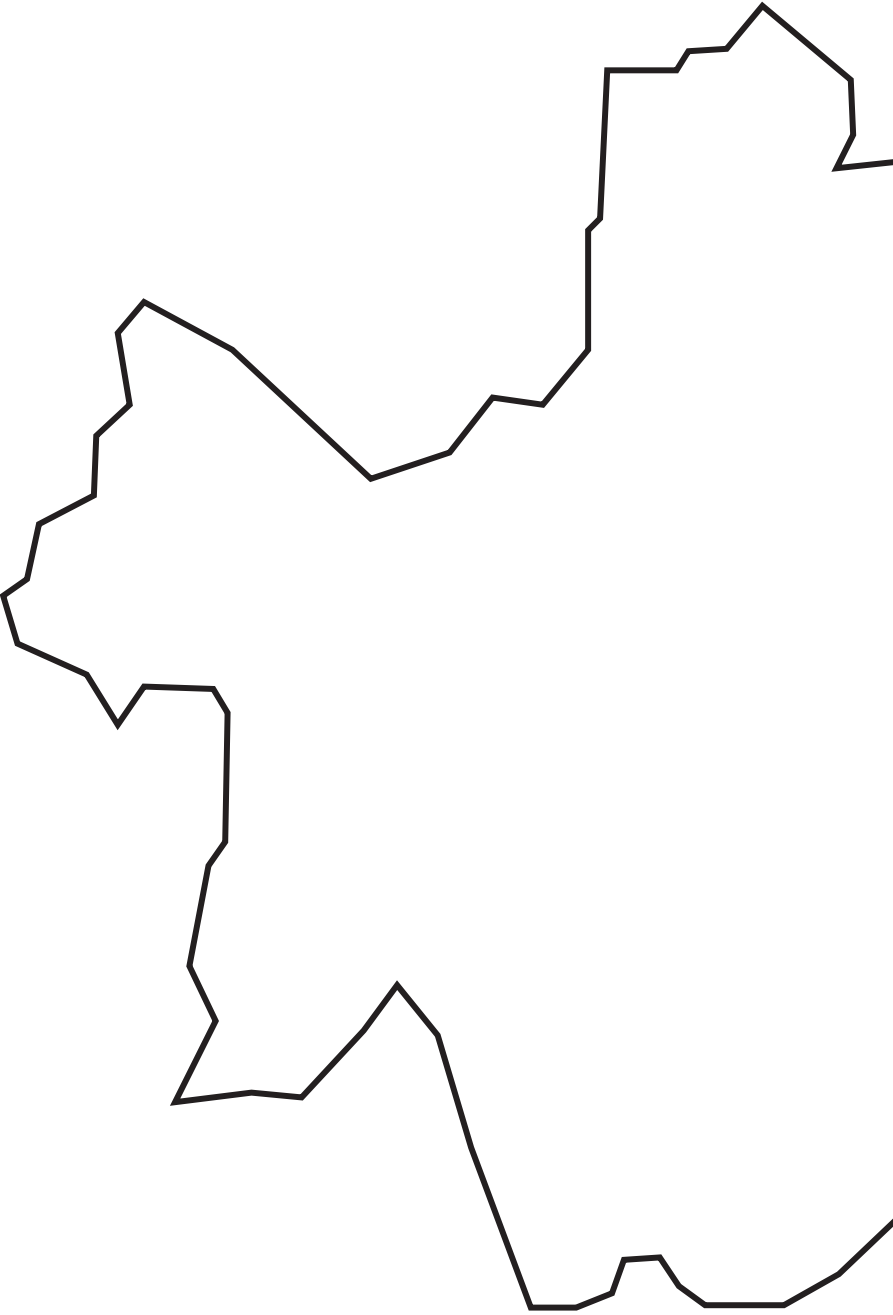
# Media City Seou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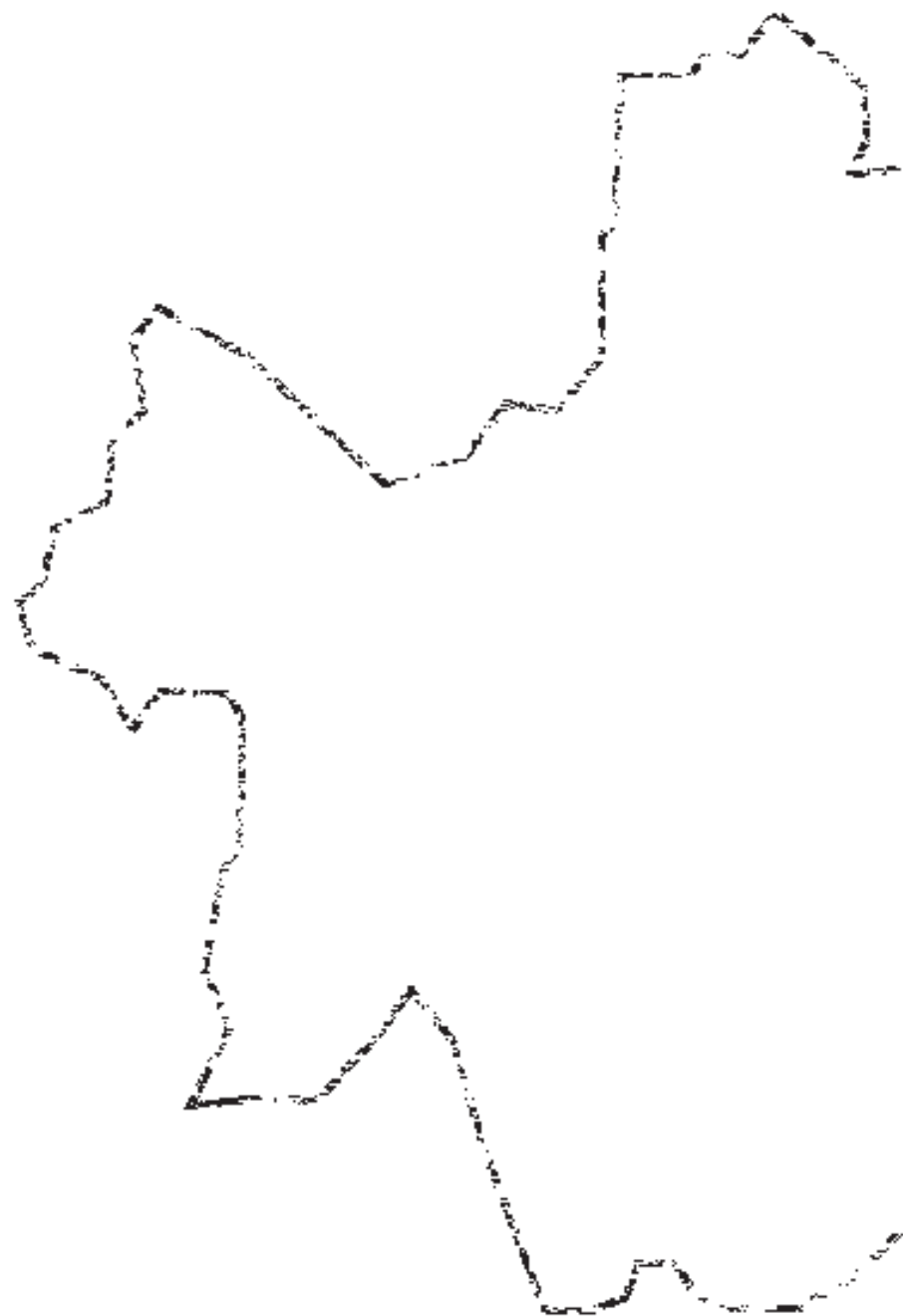
제6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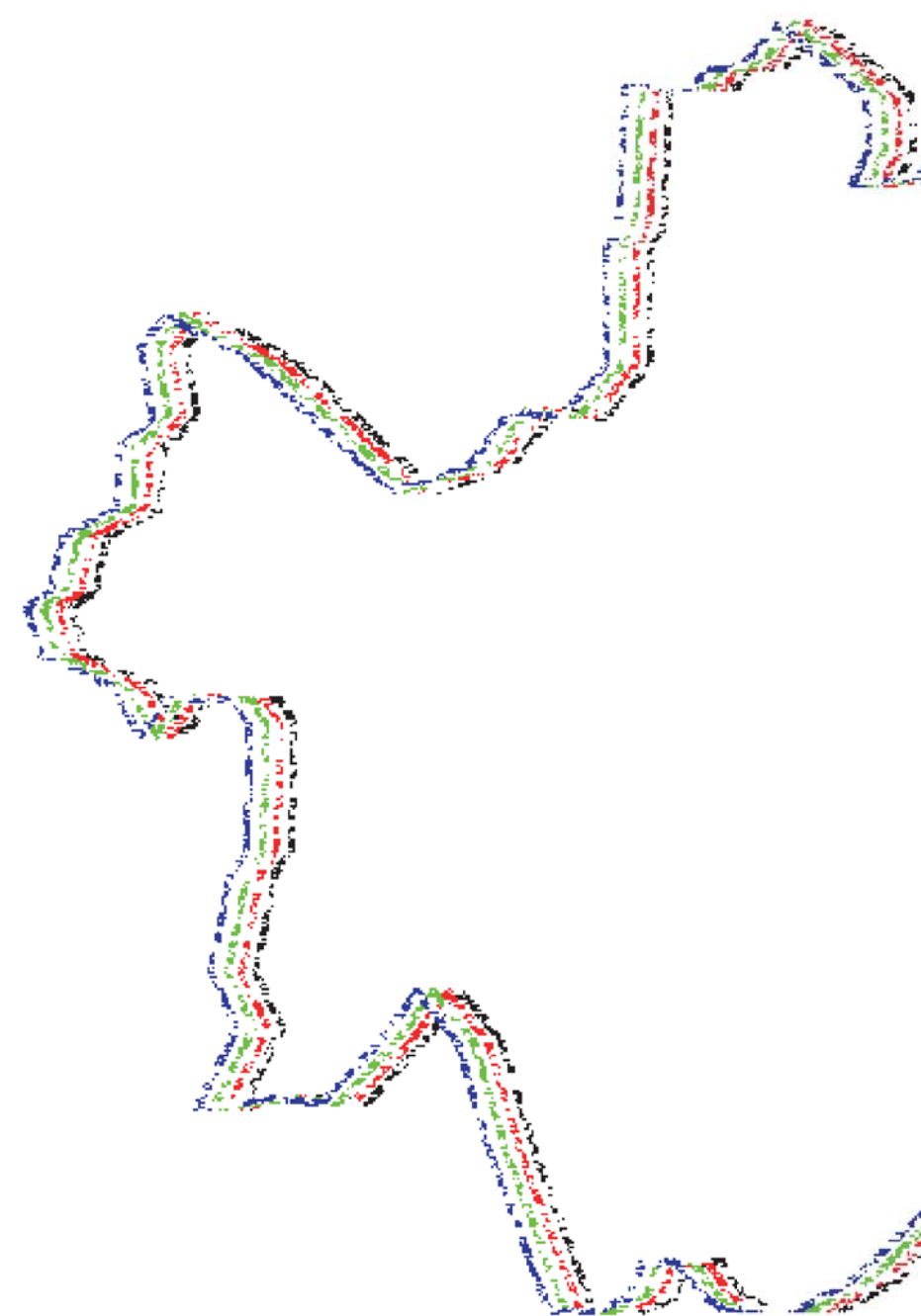


트러스트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Trust  
Media City Seou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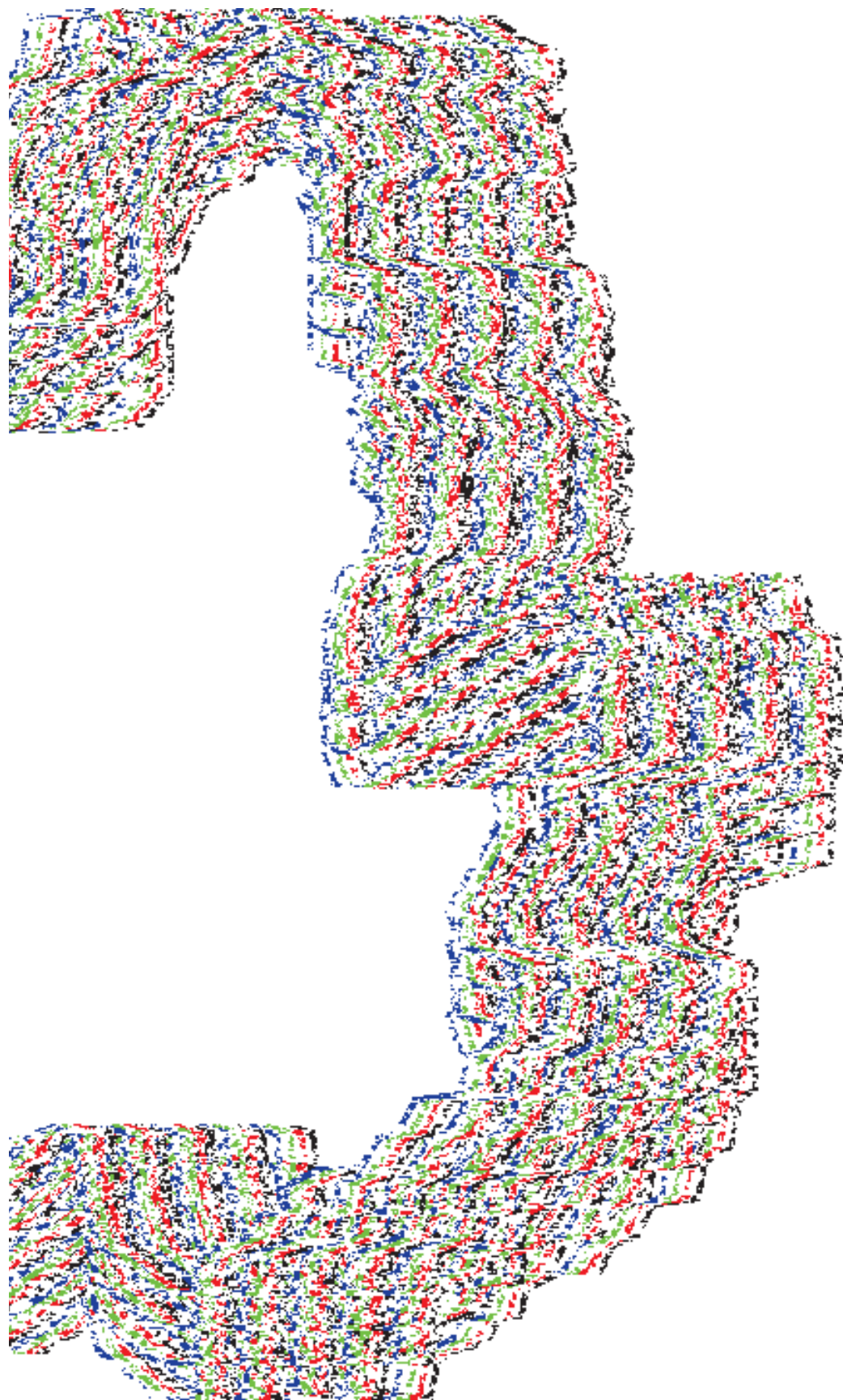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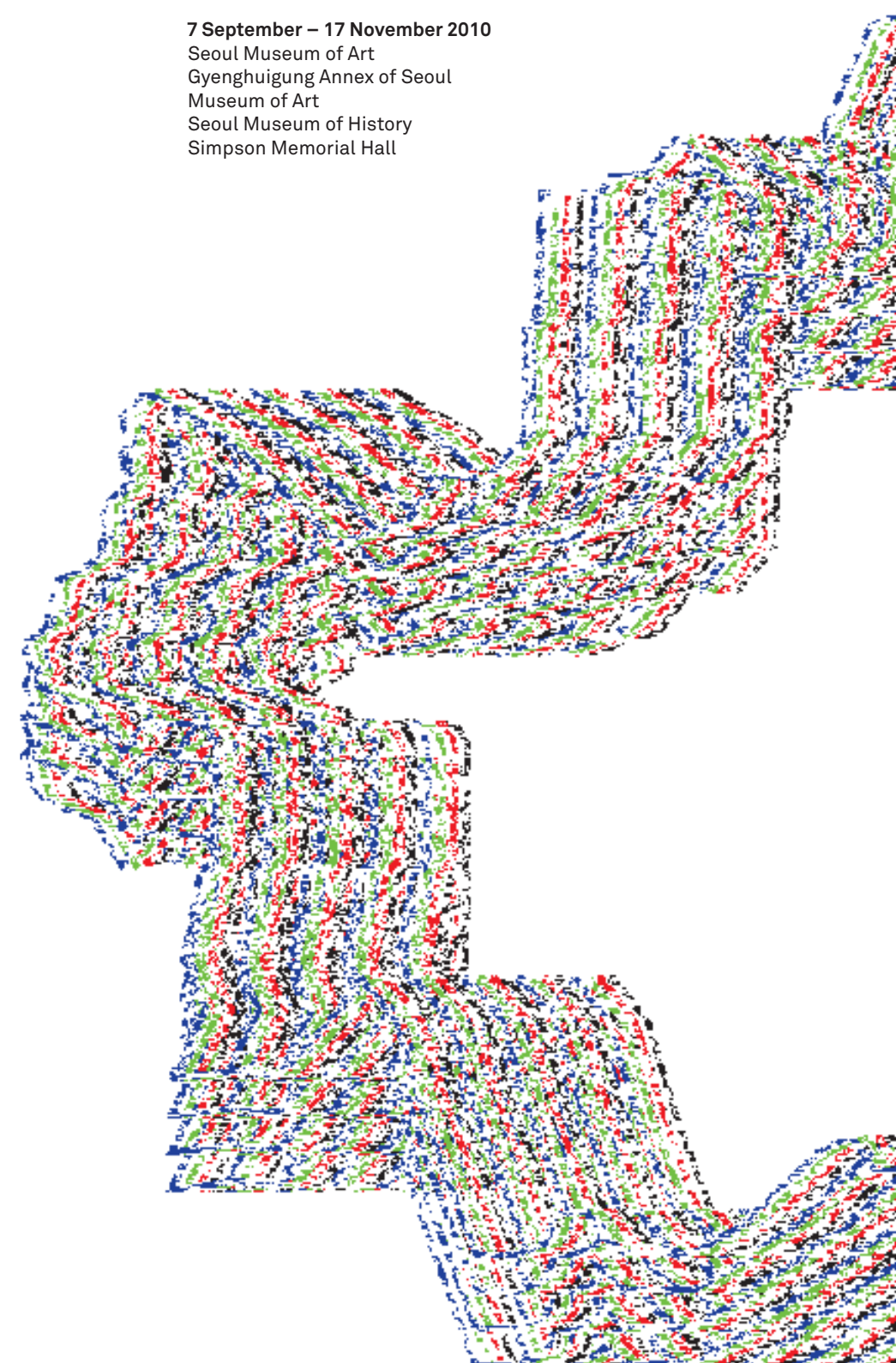






2010년 9월 7일 - 11월 17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역사박물관  
심슨기념관



7 September - 17 November 2010

Seoul Museum of Art  
Gyeonghuigung Annex of Seoul  
Museum of Art  
Seoul Museum of History  
Simpson Memorial Hall





트러스트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Trust  
Media City Seoul  
2010

## 차례

오세훈  
**13** 축하

유희영  
**14** 초대 말씀

김선정  
**15** 미디어 시티 서울

김영하  
**24** 머리

**26** [참여 작가: 이미지]

잘랄 투픽  
**128** 베이루트의 불문율과 쓰여지지 않은 슬로건들

김영하  
**136** 오늘의 커피

클라라 킴  
**140**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

니콜라우스 샤프하우젠  
**151** 신뢰(와 불신)에 대하여

스미토모 후미히코  
**154** 반투명한 미디어

김영하  
**162** 명예살인

**163** [참여 작가: 텍스트]

김영하  
**208** 약속

**212** 전시 장소  
**218** 크레딧  
**220** 작가 색인

<

스튜디오 램블/훔부르거  
미디어 시티 서울 그래픽 아이덴티티  
Studio Lambl/Homburger  
Graphic identity for Media City Seoul  
2010

## Contents

OH Sehoon  
**13** Greetings from the Mayor

YOO Hee-Young  
**14** Greetings from the Director

Sunjung KIM  
**15** Media City Seoul

KIM Young-ha  
**24** Head

**26** [Artists: Images]

Jalal Toufic  
**129** Beirut's Unwritten Laws and Graffiti

KIM Young-ha  
**136** Pick of the Day

Clara KIM  
**140** New Imagined Communities

Nicolaus SCHAFHAUSEN  
**151** On Trust (And Mistrust)

Fumihiko Sumitomo  
**154** Translucent Media

KIM Young-ha  
**162** Honor Killing

**163** [Artists: Texts]

KIM Young-ha  
**208** Promise

**212** Venues  
**219** Credits  
**220** Artists Index

Occasionally in the inner margin  
Phrases pertaining to "trust" that the  
website of Media City Seoul randomly  
collected from the Internet.

특별 페이지 왼쪽 여백  
미디어 시티 2010 홈페이지가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신뢰' 관련 구절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서울에서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세계 각국에서 서울을 찾아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디어와 예술이 만나는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현대미술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서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행사입니다. 이번 제6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트러스트(Trust)를 주제로, 21세기 초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현대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되돌아봄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더욱 풍성한 상상력을 선보이며 미술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예술행사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Greetings and welcome.

In Seoul, a dynamic home for art that embraces creative expression and engagement, it is my great pleasure to host th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and to welcome all the participants from Korea and abroad.

Th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where media and art converge, is very well-matched with Seoul's image, incorporating contemporary art and high technology. The 6th edition of th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organized under the title of Trust,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structure of contemporary society is changing in conjunction with the emergence of media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The exhibition will be a ground in which we can explore various aspects of media which have become the status quo in our daily lives.

I hope that th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will contribute to the diversity of fine art and encourage the cultivation of richer imagination, and I believe this biennial will become one of Seoul's distinctive international art events. Thank you for being a part of this exhibition.

Oh Se Hoon  
Mayor of the City of Seoul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10주년을 맞이하면서, 2010년 제6회 미디어 시티 서울의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며 열렸던 제1회 미디어\_시티 서울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다양한 주제로 미디어 아트에 대한 미학적·예술적·기술적 접근을 시도하여,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트러스트(Trust)라는 주제로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의 미디어, 즉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미디어가 현대인들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매체가 다양해지고 대중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1세기 변화된 미디어의 환경과 그 의미를 재정립하고, 좀 더 인간적인 시각으로 동시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본관과 경희궁 분관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이화여고 심슨기념관까지 전시가 확장되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총 21개 국에서 젊고 유망한 작가 45개팀을 초청하여 명실공히 서울의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서울시립 미술관은 시민들에게 사색과 휴식의 공간이자 전 지구적인 담론들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유희영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welcome you to the Six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at the Seoul Museum of Art on this,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biennale's inauguration.

Beginning with the first Media City Seoul exhibition, which opened the door to the new millennium in the year 2000, th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has received strong support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for the past ten years for the incorporation of dynamic themes in its aesthetic, artistic and technological approaches to Media Art. This year's theme of Trust will foster a clos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people living in today's global community, encouraging a broader interpretation of media, one that encompasses humanistic and sociological views. As today's media become ever more diverse and popular, our daily lives undergo rapid and sweeping transformations. Through this exhibition, we would like to reevaluate the environment and meaning of the media that drive these changes and are themselves subject to constant metamorphosi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hile sharing contemporary experiences on a personal level.

Taking place at the Seoul Museum of Art, the Gyeonghui Palace Annex of the Seoul Museum of Art, the Seoul Museum of History, and the Simpson Memorial Hall at Ewha Girls' High School, Media City Seoul 2010 gathers 45 artists and artist groups who are on the front lines of contemporary art practice in 22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is year's decennial event. As the contemplative season of autumn envelops our city, Seoul Museum of Art will become a site for engaged discourse, offering a space for reflection and relaxation to citizens and visitors alike where an international dialogue will be kindled. Welcome, everyone.

YOO Hee-Young  
Director, Seoul Museum of Art



## 김선정

들어가며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트러스트’는 제6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다른 명칭이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대신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새로운 로고를 제시한다. 이는 전시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미디어 시티 서울(혹은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전시들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어서이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전시를 말하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대규모의 현대미술전을 일컫는 용어가 되어버렸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비엔날레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아트페어와 같은 대규모 관객을 동원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부터, 미디어\_시티 서울과 부산비엔날레가 2000년부터 개최되면서 국제적인 비엔날레가 셋이나 된다. 또한 국내의 3대 비엔날레가 모두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 시선을 아시아로 돌리면 상하이, 베이징, 싱가포르, 그 외 호주의 시드니 같은 대도시에서도 비엔날레가 열린다. 이들 행사 역시 모두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 우리가 비엔날레라는 형식 자체를 새롭게 보고자 하는 이유도 이러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비엔날레는 미술관에서 열리는 지속적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일회성 이벤트이자 규모도 크다. 또한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는 매번 새로 선정되어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전시 또한 관객에게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현대미술의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긴 하지만, 그 연속성을 찾기는 힘들다. 비엔날레를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에 대한 구상은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뒤돌아보면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은 다른 비엔날레와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 비엔날레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전시장으로, 도시와 예술적 요소가 함께 호흡하는 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층의 관객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후 처음의 야망은 지속되지 못하였고 기존의 관례적인 전시 형태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미디어\_시티 서울은 국내의 비엔날레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행사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2010년 미디어 시티 서울은 이전의 전시들을 재방문해 동시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가질 수 있는 소규모 비엔날레만의 장점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 Sunjung KIM

## Foreword

Media City Seoul 2010: Trust is another name for the six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The new name, with its new logo, replaces the official titl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as we look back on the exhibitions of the past ten years and reflect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biennial. “Biennale,” in this context, means an exhibition that takes place every two years, but the term has become a shorthand catch-all for large-scale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in general. In recent years, the world has witnessed a sharp rise in biennials and other large-scale artistic events with popular appeal, including art fairs. Why?

The three leading biennials in Korea—the Gwangju Biennale, started in 1995, and media\_city seoul and the Busan Biennale, both launched in 2000—are all held at around the same time in the same years. Moreover, biennials in other major Asian cities—Beijing, Shanghai, Singapore, and Sydney—will all be held in the same years starting next year. The biennials hosted by Asian cities, unlike ongoing museum programs, are event-oriented exhibitions on a large scale. Different curators and curatorial teams are named for each biennial, which makes it difficult to maintain consistency in content. While exhibitions designed by different curators may provide a dynamic view of the contemporary art scene, the price is a certain degree of continuity. Is it possible for biennials to be a platform for discovering new trends in contemporary art and at the same time to present a durable vision? In 2000, media\_city seoul did not use the term “biennale” in order to distinguish itself from other biennials. It used the entire city of Seoul as its exhibition space, strove for an exhibition that integrated the city with artistic elements, and targeted a broad range of people as its audience. Despite this ambitious beginning, it reverted to a conventional exhibition format in the following years. Media City Seoul is small in scale and has the shortest history among Korean biennials, but its size makes it more flexible and open to experimentation. Media City Seoul 2010 hopes to revisit former exhibitions and use them as the basis for this year’s event.

## ‘미디어\_시티 서울’에서 ‘미디어 시티 서울’로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은 2002년 2회부터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고, 5회까지 같은 명칭을 사용해왔다. 2010년에 열리는 제6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미디어와 시티 사이의 ‘\_’ 없이 1회 명칭인 ‘미디어 시티 서울’로 되돌아갔다. 1회부터 6회까지 진행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은 미디어 시티 서울과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디어\_시티 서울을 만들 당시에 송미숙 총감독은 여타 비엔날레나 엑스포와 차별화시키고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엔날레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하지만 2회부터는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미디어 아트에만 한정된 비엔날레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10주년을 맞는 이번 6회 전시에서는 이전의 미디어\_시티 서울 혹은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뒤돌아보면서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의 시작점인 2000년에 개막된 미디어\_시티 서울은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미술의 영역에서 벗어나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새로운 미술을 보여주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미술은 테크놀러지의 발전과 함께 시작된 뉴미디어 아트를 의미한다.

## History of Media City Seoul

media\_city seoul was launched in 2000 and officially added the nam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beginning with the second exhibition in 2002. This year’s biennial has gone back to the original name, but without the underscore between the words “media” and “city.” The reason for this change is the curators’ different vision for the exhibition. For the inaugural exhibition, artistic director Misook Song wanted to create a biennial that was different from existing biennials or expositions, one that would use the entire city of Seoul as its venue. The name “media\_city seoul” omits the term “biennale.” For the second exhibition, however, the name was changed to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and the biennial presented only media art. As we enter the tenth anniversary year, we would like to look back on past exhibitions—whether they were held under the name media\_city seoul or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and reflect on how we may offer a more long-term vision for the biennial.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provided a perfect backdrop for the beginning of media\_city seoul, an attempt to go beyond traditional art forms such as painting and sculpture and show new art spurred

## 제1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사이

## 기간/장소

2000.9.2~11.15

서울시립미술관, 지하철 13개소

## 총감독

송미숙

## 큐레이터

바바라 런던, 제레미 밀러,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 류병학

제1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시간간의 외부적 경계를 허무는 디지털 혁명의 다양한 표현인 ‘도시: 0과 1사이’를 주제로, 네트워킹의 중심점이자 매개로서의 도시 서울이 가지는 의미를 조망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 각 곳의 미술관 및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이 전시는 ‘미디어 아트 2000’, ‘시티 비전 / 클럽 시티’, ‘서브웨이 프로젝트’의 소주제로 나누어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하는 거대도시 서울의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미디어를 화두로 네트워크의 중심점이자 매개로서의 도시 서울이 갖는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 The 1st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media\_city seoul 2000)

City: between 0 and 1

## Duration/Venue

2 Sep – 15 Nov 2000

Seoul Museum of Art and 13 subway

stations

## Director

Misook Song

## Curators

Barbara London, Jeremy Millar, Hans

Ulrich Obrist, Byong Hak Ryu

The 1st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took the name “City: between 0 and 1,” embracing the burgeoning digital revolution that was redrawing—and in fact erasing—the boundary between time and space. Investigating the Korean capital city’s emergence as an intermediary and hub of networking, exhibitions were presented at a number of museums and public spaces in Seoul. Accompanying the biennial’s binary code-inspired them were many sub-themes, such as “media art 2000,” “city vision / club city,” and “subway project,” all of which reflected the desire to find a new direction through dynamic communication between the analog and the digital.

## 제2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달빛 흐름

## 기간/장소

2002.9.26~11.24

서울시립미술관

## 총감독

이원일

## 큐레이터

마일클 코헨, 마르 드 브루게를, 그레고리 안센, 김 매칸, 구나란 나다라잔, 황 두, 아즈마야 타카시

제2회 비엔날레 전시 주제는 ‘달빛 흐름’으로, 인류의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간직한 달이 내포하는 초월적 숭고미(cyber sublime)에 비유하여 새로운 숭고미를 주제로 하였다. 전시는 ‘디지털 서브라임’, ‘사이버 마인드’, ‘루나즈 칠드런’, ‘루나 노바’라는 4개의 테마 하에, 미디어를 달에 비유하여 미디어와 테크놀러지를 ‘정복’의 수단이 아닌 인류가 잊고 있던 낭만을 다시 회복하려는 도구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중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비엔날레 모델을 제시하였다.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 미디어 아트와 연결되어 있다. ‘뉴미디어’라는 이 용어는 배급용 디지털 컴퓨터에 의존하는 새로운 문화 형태에 재빨리 이용되었는데, 시디롬, 디브이디롬, 웹사이트, 컴퓨터 게임,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장치 등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sup>1</sup> 새로운 문화는 현대미술의 확장을 가져왔다. 미디어\_시티 서울은 미술의 영역을 비디오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테크놀로지 아트 등의 미술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이나 공공 미술의 영역까지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도시: 0과 1 사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시와 공공 미술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었다. ‘0과 1’은 모든 정보가 이진법 체계인 비트의 가치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상징하며 시공을 초월해 작용하는 디지털 세계를 의미한다. ‘사이’란 말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 가능성과 잠재된 역동성을 상징하며, 이러한 추정은 0과 1 사이에 놓인 숫자가 1과 무한대 사이에 놓인 숫자보다 크다는 데서 출발했다.<sup>2</sup> 여타 비엔날레와의 차별화와 대안으로서 예술과 테크놀러지가 결합한 미디어 아트, 공공 공간을 이용한 지하철 프로젝트, 도심의 전광판을 이용한 시티비전 프로젝트, 그리고 어린이들이 참여와 놀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앨리스 등이 진행되면서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소통의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New art” meant a new kind of art that began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In the 1990s, the word ‘new’ reappeared once again. Now, however, it was paired not with a particular medium such as photography, print, or film but with media in general. The result was the term ‘new media.’ This term has been used as shorthand for those new cultural forms that depend on digital computers for distribution, such as CD-ROMs and DVD-ROMs, Web sites, computer games, hypertext, and hypermedia applications.”<sup>1</sup> New art led to the expansion of contemporary art. media\_city seoul extended the artistic sphere to include not only video art, interactive art, and technology-based art, but also industry-related and public art. For the first media\_city seoul, many exhibitions and public art projects were set up in various parts of the city under the theme City: Between 0 and 1. “The two binary figures refer to the values recognized by a bit, the unit of all digital information; we adopted them to signify the futuristic vision of Seoul as it develops and expands beyond its spatial and temporal physical limitations.... The word ‘between’ expresses a notion loaded with profound significance, alluding to the dynamics of the infinities

하지만 2회부터 5회에 이르는 사이, 명칭이 바뀌었고, 전시 장소 역시 공공 장소에서 시립미술관 안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시 형식도 관계적인 형식의 전시로 축소되었다. 전시 내용 역시 도시나 공공성보다는 미디어 아트의 흐름이나 경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002년 2회 비엔날레는 ‘달빛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가상 세계의 숭고미(sublime)를 추구했다. 모더니즘의 숭고미와는 달리, 신초월적 이상주의를 달에 비유된 가상현실 속에서 새롭게 규명하고자 했다.<sup>3</sup> 2회 비엔날레가 미학적인 접근이었다면, 3회(‘게임/놀이, 호모 루덴스’)는 유희적 개념을 채택하여, 놀이의 여러 다른 요소들—게임 자체와 전쟁까지 포함하는—을 전시 형태로 보여주었다. 4회 대회(‘두 개의 현실’)는 가상현실을 다루었고, 5회(‘전환과 확장’) 때는 미디어 아트가 미술 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빛, 소동, 시간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과거의 비엔날레에서는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의 범위와 그 경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미디어 시티 서울은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가 미술을 미디움(medium) 즉, 재료로 국한시키는 한계성을 인식, 보다 확장된 의미의 미디어를 재정의하고 그 의미를 확대시키기 위해 미디어 시티 서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and opportunities that may exist between the values ‘zero’ and ‘one.’”<sup>2</sup>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biennials, the first media\_city seoul proposed diverse exhibitions and programs, including a media art exhibition combining art and technology, a public art project in the subway, a city vision project using electronic billboards, and the program Digital Alice, which offered children new digital experiences through participatory activities and games. The first exhibition provided a channel for communication by experimenting with various forms of display in many different public spaces within the city and attempting to reach a wide public, from children to adults.

However, the biennial's scope was reduced to that of a conventional exhibition for the second through fifth exhibitions, bringing the art inside, from public spaces into the Seoul Museum of Art. The name was also changed from media\_city seoul to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with the content focused more on trends in media art rather than on the city or the public nature of art. “The aesthetic direction of media\_city seoul 2002, Cyber Sublime, seeks the Sublime that can be found in Cyber Space, a place of inscrutable mystery, just as the other side of the moon has never

#### The 2nd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media\_city seoul 2002)

Lunar's Flow  
Duration/Venue  
26 Sep – 24 Nov 2002  
Seoul Museum of Art  
Director  
Wonil Rhee  
Curators  
Michael Cohen, Marie de Brugerolle, Gregor Jansen  
Kim Machan, Gunalan Nadarajan, Huang Du, Azuyama Takashi

“Lunar's Flow” was the theme for the 2nd biennale, which explored the new sublime as a metaphor for the cyber sublime of the moon and all the utopian fantasies nurtured by the human mind imagined to exist there. Along with sub-themes like “Digital Sublime,” “Cyber Mind,” “Luna's Children,” and “Luna Nova,” the exhibition framed media not as means of “conquest” but as a tool for restoring romantic feelings long forgotten by human beings. Through this thematic approach, the 2nd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introduced a new model for the biennale format.

#### 제3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4)

디지털 호모 루덴스(게임/놀이)  
기간/장소  
2004.12.15 – 2005.2.6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  
총감독  
윤진섭  
큐레이터  
요한 파인애플, 리즈 휴즈, 한스 D. 크리스트, 틸만 바움가르텔

제3회 비엔날레는 온라인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놀이와 게임으로 인해 확연히 달라진 세상을 예술이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데 초점을 두고 ‘게임/놀이’를 주제로 다루었다. 본전시에서는 우리의 생활방식에 게임이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개개인의 일상과,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력, 각각의 게임과 여러 놀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메시지들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The 3rd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media\_city seoul 2004)

Digital Homo Ludens (Game and Play)  
Duration/Venue  
15 Dec 2004 – 6 Feb 2005  
Seoul Museum of Art, website  
Director  
Jin Sup Yoon  
Curators  
Johan Pijnappel, Liz Hughes, Hans D. Christ, Tilman Baumgaertel

With the theme “Digital Homo Ludens (Game and Play),” the 3rd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took its inspiration from the changes in game and play—namely, the internet and digital interfaces—that were quickly and permanently altering the status quo worldwide. Using art as a means to investigate these changes and examine their results, the exhibition based its inquiry in the lives of individuals in which games naturally became parts,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game industry, and the sociocultural messages embedded in game and play, all uncovered through media art.

#### 제4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6)

두 개의 현실  
기간/장소  
2006.10.18–12.10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  
총감독  
이원일  
큐레이터  
유코 하세가와, 레브 마노비치, 이리스 마이어, 피 리

제4회 비엔날레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의 일상화를 통해서 가상의 현실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형성한 ‘새로운 물리적 현실’을 주제로 하여, 가상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실이 가상세계에 영향을 주기까지에 이르는 현재의 역설적 상황을 ‘두 개의 현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본전시는 ‘두 개의 리얼리티: 조우와 충돌’, ‘리얼리티의 확장: 경험과 유희의 확산’, ‘경쟁적 리얼리티: 새로운 관계항 맺기’의 소주제 하에서 오늘날, 특히 인터넷과 사이버 환경이 극도로 발달한 한국과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현실들을 점검해보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등 대중의 아이덴티티가 확장되어가는 현실을 고찰하였다.

#### The 4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media\_city seoul 2006)

Dual Realities  
Duration/Venue  
18 Oct – 10 Dec 2006  
Seoul Museum of Art, website  
Director  
Wonil Rhee  
Curators  
Yuko Hasegawa, Lev Manovich, Inris Mayer, Pi Li

The 4th biennale focused on the New Physicality that was developing as a response to the increasing interrelation of the physical and the virtual, a result of the advancements in internet and multimedia technologies. The exhibition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se distinct realities, their mutual interdependency, and the paradoxical situation of the virtual exerting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physical. The exhibition approached the concept of New Physicality with an artistic language and exhibition structure that sublimated no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the division and integration of cyberspace, and even healing through three sub-themes, “Dual Realities: Encounter and Clash,” “Extension of Reality: Permeation of Experience and Play,” and “Competitive Realities: Seeking A New Relationship.”

#### 제5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 2008)

전환과 확장  
기간/장소  
2008.9.12–11.5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  
총감독  
박일호  
큐레이터  
마르텐 베르데, 라울 자무디오, 토루 마츠모토, 안드레아즈 브뢰크만

제5회 비엔날레는 미디어 아트의 등장과 유행이 새로운 매체를 미술 속으로 끌어들이고 전환시킴으로써 미술 경험 영역에 변화와 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환과 확장’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본 전시는 빛, 소동, 시간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미디어아트와 전통적인 미술과의 차이점들이 기존의 미술영역에 어떠한 새로운 경험과 특성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 트러스트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미디어 아트 자체보다는 미디어의 다양한 모습과 그것이 제시하는 삶의 변화에 주목한다. 테크놀러지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쇄기계의 등장과 함께 책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군주정과 종교 공동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것과 같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은 우리의 일상에 다른 모습을 가져온다.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과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물은 텍스트 중심의 문화에서 이미지 중심의 문화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기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편집하거나 영화의 허구적 요소(fiction), 연극적인 요소, 신화나 소설의 이중성을 이용한 작업들은 미디어의 의미와 미디어가 가져오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미디어가 가지는 힘과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무의식적으로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는 그것이 개인적 결과이든, 정치적, 경제적 결과이든, 또는 미학적, 심리적,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결과이든 간에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디어는 마사지(massage)다.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이해는 환경으로서의 미디어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sup>4</sup>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에 의해 지배받는 대중의 모습은 미래를 그린 영화(예를 들면, ‘블레이드

**The 5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media\_city seoul 2008)**  
Turn and Widen

**Duration/Venue**  
12 Sep – 5 Nov 2008  
Seoul Museum of Art, website

**Director**  
Ilho Park

**Curators**  
Maarten Bertheux, Raul Zamudio, Tohru Matsumoto, Andreas Broeckmann

The 5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under the theme “Turn and Widen,” highlighted the changes and expansion that the emergence and dissemination of media art have brought to contemporary art practice. In viewing how the differences between media art and traditional art are producing new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in art, the exhibition took three key terms—Light, Communication, and Time—as reference points for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the exhibition’s program.

been exposed to our eyes. This is to bring up the idea of Neo-Transcendental Utopia as a main discourse in Cyber Space, which is compared to the Moon....”<sup>3</sup> If the second exhibition took an aesthetic approach to media art, the third proposed the concept of play and Homo Ludens, featuring various elements of diversion in culture, including games and even war. The fourth exhibition dealt with virtual reality, while the fifth utilized light, communication, and time as means of illustrating the ways in which media art has broadened our conception of the artistic realm. The scope and boundaries of media art, however, have also posed problems for past exhibitions. With the sixth exhibition, we realized that the limitations of the term “media art,” which confines art to being a “medium”—in other words, to a mere “material”—forced us to seek a more universal definition of the term “media.” Hence, we return to the name Media City Seoul rather than the official nam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 Trust

Under the name Media City Seoul 2010, the six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focuses on the different facets of media and the changes they bring about in our lives rather than on media art itself. With advancements in technology, media such as television, radio, and the Internet have become closely intertwined with printed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as well as photography and videos. In an attempt to capture the true meaning of the media and the transformations they bring about in our lives and our environment, this year’s exhibition features works by artists who use different forms of media in their productions. “All media work us over completely. They are so pervasive in their personal, political, economic, aesthetic, psychological, moral, ethical, and social consequences that they leave no part of us untouched, unaffected, unaltered. The medium is the massage. Any understanding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 is impossible without a knowledge of the way media work as environments.”<sup>4</sup> The impact of such media is ever-increasing. Situations in which the public is controlled by the media are now depicted in films or novels, and it is often said that the media are used as a means of psychological control.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has facilitated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As a result, the media also exercise, increased influence on people. Powered by

러너)나 ‘마이내리티 리포트’), 소설(«멋진 신세계» 혹은 «1984»)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미디어는 흔히 정신적, 심리적인 지배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미디어의 발달은 특히 개인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던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 필요나 의지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삶의 터전을 바꾸어 살게 되었다. 사회, 국가, 정치, 종교 등 근대사회의 패러다임 혹은 경계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 뉴스 등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 습득에서 인터넷과 같은 양방향 혹은 다방향의 소셜(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사적 교류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담론의 장을 통해 정보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다방향 다층의 하이브리드적 접촉과 소통이 가능해진 오늘날, 정보나 사실은 더 이상 하나의 시각이 아니다. 이제는 사실과 허구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상업주의와 경제 활동의 발달로 인해, 개인이 접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광고로 대체되었다. 오늘날의 미디어에서는 미디어가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나 가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 즉 트러스트가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우리는 미디어로 인한 삶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 도덕과 자본으로서 트러스트를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 사회 도덕과 번영의 창조»에서 “경제적 현실을 검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 즉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는 여러 종류의 사회 자본 중에서 단연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본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혈연 등의 개인적 연고를 초월하여 사회적 범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적인 신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자본주의 현대사회는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무언가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예술 분야에서는 기울어짐 혹은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예외적으로 존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일반적인 삶에서는 극적 치우침보다는 균형을 강조한다. 양 끝의 무게가 긴장감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균형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시소나 저울처럼 말이다. 팽팽한 균형이 깨진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잃고, 그저 탈출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기에 급급해지고 만다.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이후 이러한 균형점의 이동 혹은 운동을 예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전시 주제 트러스트는 이를 위한 개념적 장치다. 우리는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technological advances, the media—once unilateral—not only offers two- or multiple-way communication, but can also be used on a real-time basis. The media have come closer to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psychological or mental state. In a world in which “hybrid,” multidirectional, multilayered forms of contact and communication have become possible, information or facts are no longer based on a single viewpoint. It has become difficult to tell fact from fiction. With the advent of commercialism and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ctivities, advertisements have replaced most of the information that individuals encounter. Development of the media seems to have paralyzed communal values, the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mutual trust. In this regard, in the face of changes produced by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which we are experiencing in our lives and our environment, we could rethink trust as both a social virtue and a form of social capital within communities. In his book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ancis Fukuyama wri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we can learn from an examination of economic life is that a nation’s well-being, as well as its ability to compete, is conditioned by a single, pervasive cultural characteristic: the level of trust inherent in the society.” Among the many forms of social capital, he considers trust among members of a society to be by far the key element that determines the success of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trust he emphasizes as social capital is a “public trust” motivated by something broader than self-interest, such as kinship, which gives members of a community common grounds for action.

Of the post-Cold War modern world, Samuel P. Huntington write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conflict in this new world will not be primarily ideological or primarily economic. The great divisions among humankind and the dominating source of conflict will be cultural.... The clash of civilizations will be the battlelines of the future.”<sup>5</sup> Since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tructures, modern consumer society has tended to lean in certain directions rather than remain balanced. The art world is a milieu in which such lopsidedness could be respected, but in everyday life, balance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inclinations. Just like the seesaw or the scale, which achieves balance when the weights at both ends maintain a specific tension, life in general emphasizes the virtue of

대중화된 미디어가 현대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비판할 것이다.

우리는 기술과 미디어의 확장으로 사실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그것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게 된다. 어떤 사실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다른 관점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힘들다. 신뢰나 신용이 깨어진 상황, 즉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미디어의 확장이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지만, 진실은 왜곡되고 과장되고 스펙터클한 볼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가 상업주의에 의해 조정되어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힘들어져졌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의혹은 신뢰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트러스트는 신뢰 혹은 믿음이라고 번역된다. 우리는 주제 트러스트에서 선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내포할 것이다. 트러스트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들과 만드는 관계의 소통 방식이다. 미디어의 확장으로 왜곡된 사실들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지금, 신뢰나 믿음은 낡은,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기술과 미디어가 신뢰에 관한 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인터넷은 공동체의 다른 형태들을 제시하고 개개인의 흥미나 관심에 의한 또 다른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에 기초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예를 들어, 데이만타스의 작업은 동독에 남겨진 칼 맑스의 동상에 대해, 야엘 바르타나는 폴란드 내의 유대인 문제를, 마농 드 부르는 1971년 아티카 교도소 폭동 사건을, 아파차풍은 태국의 나무아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억을, 왈리드 라드는 레바논에서 일어났던 인질 사건을, 라이너 가날은 중국을 유럽 내에 둔다는 가정을 이야기한다. 작업들은 조작된 혹은 만들어진 이야기의 구조를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한다. 미디어의 다양한 모습과 미디어에 의해 변화된 모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나 범주까지 확대되었다. 나스린과 바박은 미국 내에서 방영 중인 이란 방송을 그대로 이용하고, 왈리드 라드는 도로의 CCTV 영상을, 크리스토프 돌로스는 1969년에서 1977년까지 키프로스공화국 공보처에서 만든 당시의 대통령 마카리오스 3세 대주교의 사진 자료를 이용한 작업을, 박찬경은 계룡산 신도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보여준다. 신문, 잡지 등의 인쇄 관련 미디어와 인터넷, 뉴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영상 미디어를 활용한 작업—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전시 기간 동안 자신의 작업을 한국의 신문과 도시에 있는 거대한 일렉트릭 빌보드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등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스펙터클한 세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equilibrium. A society without tension loses its sense of direction and ends up entangled in trying to find a way out.

Media City Seoul 2010 has taken “trust” as the theme of this year’s exhibition in an effort to reflect and criticize media’s influence on the fabric of modern society. Other words for “trust” could be “confidence” or “faith.” Thanks to the extension of the media, we now come into contact with not one lopsided story but many different stories surrounding the facts, leaving us reluctant to believe any. There are many groundless and unconfirmed accounts among these stories, and the truth is impossible to ascertain. The rapid propagation of the media now provides immediate, real-time access to information, but the truth is often distorted and incidents may be exaggerated, degenerating into spectacle. Once trust is broken, only doubts are left to take its place, and we reach the point of being unable to believe anything. Furthermore, commercial interests control most information, making it even more difficult to find trustworthy sources. Suspicions about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also stem from absence of trust. Trust is grounded as much in good faith as in doubt. Trust is a tool for communicating within the relationships individuals establish with other members of society. When the extension of the media results in the distortion of facts as well as their omnipresence in every corner of our commercialized society, as has occurred in this era, then “trust,” “confidence,” and “faith” feel like old-fashioned words that are no longer valid.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media such as the Internet offers other forms of communities and alternative spaces in which to explore individual interests. Artists experiment with forms of different media, such as TV and film (for example, a story containing documentary and fictional forms), and deal with issues such as imagination, subjectivity, and localities. Their work sometimes reveals the underlying constructs of mediated stories and at other times obscures them. Media City Seoul 2010 separates the media, the city, and Seoul, places them on an equal footing, offers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media, and exposes the transitions and transformation they have instigated in our lives. Trust is also a prerequisite for preserving the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s themselves as well as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Trust by default is an inherently ambiguous notion, something that works in abstract and emotional attitudes or rela-

동시에, 예술가들은 미디어를 통해서서는 보기 힘든 장면들을 보여준다. 캐서린 오피는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점을 맞추는데 대통령이 아닌, 취임식을 바라보는 관중들의 모습을 비추고, 노순택은 사진을 통해 한국에 위치한 미군 군사 기지 안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레이더 돔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모습을 담는다.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미디어, 도시, 서울을 분리시킨 후 동등한 위치에 재배치함으로써 광의의 미디어와 함께 미디어에 의해 혹은 미디어로 인해 달라진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트러스트’가 무엇이라고 밝히기는 힘들다.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일 수 있으며, 태도에 의해 혹은 관계 안에서 작동하기도 한다. 트러스트는 끊임없이 재정 의되고 변화하는 사회, 공동체, 그리고 지각에 대한 제안과 질문이다.

#### 나가며

관객들은 전시가 만들어진 후 완성된 전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번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전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전시들의 일부분을 조각조각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이전의 전시는 다음 전시의 참조점으로 작용한다. 각각의 전시가 만드는 이야기는 역사가 되고, 더 나아가 비엔날레의 일관된 성격과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미디어 시티 서울 2010은 과거에 진행되었던 전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라는 명칭 대신 ‘미디어 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미디어 아트라는 제한된 미디움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미디어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미치는 변화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미디어\_시티 서울이 만들어진 2000년이 지난 지 불과 10년밖에 안 되지만,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미디어는 불과 10년 이전과도 다른 모습으로 작동한다. 이전의 미디어가 대중을 상대로 활용되었다면, 최근의 미디어는 개인적인 접촉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 정신 상태, 윤리적 측면을 중시한다. 미디어의 영향은 일상 속으로 침투하여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좀 더 넓어지고 복잡해진 소셜 네트워크로서의 미디어를 활용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여러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디어 자체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고찰, 미디어의 속성,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미디어의 스펙터클, 미디어의 파위 등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러스트는 개인간의 문제,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등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작동하는 플랫폼적 요소이다.

미디어 시티 서울이 가진 잠재력은 무한하다. 2000년 제1회 미디어\_시티 서울 이래로 서울은

tionships. We can, however, guess what it is, even if it is not clear. This exhibition is propositional by nature and investigates the ever-shifting notions of society, community, and perception.

#### Closing Remarks

Viewers see the exhibition venue only after it has been set up. For curators, however, the exhibition is not a one-time project: it is a process of reassembling bits and pieces of past exhibitions. One exhibition acts as a reference point for the next. The stories generated by each exhibition form a history and suggest a consistency and vision for the biennial. Media City Seoul 2010 looks back at past exhibitions in an effort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the future.

As stated above, the reason we decided to use the name Media City Seoul for this year’s exhibition instead of its official name,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wa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nceiving of media art as a “medium” and focus on changes in the media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we live. Media have never been so close to our lives as today, when new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have led to the explosion of mobile technology. Daily media such as newspapers, cable television news programs, films, and videos as well as mobile phones, PDAs, PMPs (portable multimedia players), and “smart phones” provide us with a wide range of modes of communication that connect us and allow us to express our opinions in real time. In this day and age, when our mobile environment has completely changed since the time media\_city seoul was first launched in 2000, media work themselves into our lives in new ways. For example, if in the past media were geared toward the general public, their focus now has shifted to individual contact, to psychological, cognitive, and moral aspects. The media have saturated our everyday lives to such an extent that they and the everyday can no longer be separated. Their impact is in the platforms they create for expressing and sharing opinions instead of merely delivering information. The works introduced in this year’s exhibition make use of the structure of the media that has expanded and become more complicated because of online social communities. The artwork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various issues linked to our individual and social lives today. Participating artists reflect not only on the media but on various related issues including the forms and nature of the media,



미디어 시티로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무선 인터넷의 사용이 언제 어디서나 용이하다. 이런 미디어 도시 서울에서 열리는 미디어 시티 서울은 전시장뿐만이 아닌, 도시의 여러 요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전시로 점차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전시 작품 또한 한정된 모습이 아닌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고, 관객으로부터 상상력이나 새로운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실험들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도시, 서울에서, 이러한 실험들은 계속될 것이다.

the problems of communication, the media as spectacle, and the power of the media. We invest a certain amount of trust in all relationships, whether they exist between individuals, individuals and societies, individuals and countries, societies and societies, countries and countries, and so on; however, trust is no longer activated in the different experiences of individuals or the past histories of societies.

Media City Seoul has taken a different approach every year, and its potential is endless. Since the first media\_city seoul in 2000, the city of Seoul has undergone radical changes and become a true media city. Most Seoulites own mobile phones, and wireless Internet is available almost anywhere at any time. In presenting Media City Seoul in such a city, we hope that the project will slowly evolve beyond conventional exhibition spaces and take advantage of the many elements Seoul has to offer. We also hope that creativity will be given free rein in the artworks displayed, not hampered by limitations, and that different experiments will be undertaken to stimulate the imaginations of viewers and bring forth new experiences. The experiments must go on in Seoul, this city of infinite possibilities and constant evolution.

Translated by Meekyung SONG

주석

- 1. 레브 레마노비치, <소프트웨어로서의 아방가르드>,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록, 351쪽.
- 2. 송미숙, <서문>,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록, 10쪽
- 3. 이원일, <달빛흐름>, 미디어\_시티 서울 2002 도록, 14쪽.
- 4. 마셜 맥루언/팻뎡 피오르, <미디어는 맛사지다>, 김진홍 번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Notes

- 1. Lev Manovich, "Avant-garde as Software," media\_city seoul 2000 catalogue, p.351.
- 2. Misook Song, "Introduction," media\_city seoul 2000 catalogue, p.10.
- 3. Wonil Rhee, "Luna's Flow," media\_city seoul 2002 catalogue, p.14.
- 4. Marshall McLuhan and Quentin Fiore, *The Medium is the Massage*, trans. Jinhong Kim (Seoul: Communication Books, 2001).
- 5. S.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1994, p.72.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서울시립미술관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 위치해 있는 서소문동 37번지, 38번지 일대, 이 터전의 유래는 1886년 이곳에 세워졌던 국립 육영공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육영공원은 조선정부가 최초로 설립한 서양 교육기관이었으나 곧 해체되었고,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판소인 평리원(한성재판소)이 들어섰다. 그러나 1928년 일제는 다시 그 건물을 허물고 경성재판소를 지었으며, 광복 후 정부는 이 건물을 대법원으로 사용하였다.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옮겨간 후 2002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원단지를 인수한 서울시는 당시 대법원 청사를 미술관으로 용도를 바꾸면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법원으로 사용됐을 때 이 건물은 중앙 부분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아치 세 개가 연이어져 있는 출입구가 있었고, 갈색 타일을 붙인 정면이 좌우 대칭으로 서 있는 3층 규모의 건물이었다. 평면은

#### Seoul Museum of Art

The current site of Seoul Museum of Art was first used as the site for the Royal English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in 1886 and provided American-style education. The school was soon dismantled, and in 1895, Pyongri-Won, Korea's first modern court of justice, was installed in its place. In 1928, the court building was demolish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o build the Court of Kyeongseong, (the name for Seoul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Following Korean independence in 1945, the building was used to house the Supreme Court. In 1995, the Supreme Court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Seocho-dong, and the building has been used as Seoul Museum of Art since 2002.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former court building into an art museum, the city government decided to preserve as much of the building as possible, on account of its historical importance. However, due to the possibility of structural weakness caused

중앙계단과 연결 통로를 중심으로 정사각형의 중정이 양쪽에 있었고, 복도를 따라 사무실과 법정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구 대법원청사는 세워진 지 오래되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정면 외관을 제외한 내부와 뒷면은 모두 철거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정면 3칸, 측면 1칸의 아치형 현관을 가진 좌우대칭의 법원 입면을 초기 건축적 특성이 명확한 현관을 중심으로 원형 보존하여 ‘구 대법원청사’의 상징성을 표현하였고, 미술관 용도에 맞게 현대적인 전시장 시설이 신축되었다. 원형 보존된 건물의 전면부 파사드와 신축된 전시실 사이에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매개공간을 두었다. 관람객이 미술관에 들어섰을 때 처음 만나는 이 공간은 유리로 처리된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으로 가득 찬다. 빛으로 표현된 공간은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인 간극을 해소하려는 건축적 시도이다.

구 대법원 청사는 일제강점기에 법원으로 지어진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광복 후에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면서 국가권력의 삼권분립 중 한 축인 사법부의 상징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갖는 건물로 2006년 3월 2일 등록문화재 237호로 등록되었다.

####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현재 경희궁분관은 경희궁 자리에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기념관’을 신축하여 운영한 뒤 1995년 8월 이후부터 2002년 5월 서울시립미술관이 정동에 개관하기 이전까지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어왔다. 2003년 7월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으로 개관하였다.

by the effects of time, only the building's main façade was preserved. The building's original Japanese plan featured two atriums and a central staircase, with offices and courts on either side of the open space. The renovated building maintains a link to its predecessor by means of its large atrium that connects its historic façade with its exhibition spaces. Light entering the atrium through its glass ceiling expresses different periods of time, and the entire composition is a triumphant hybrid of Japanese colonial architecture and modern exhibition facilities.

As of 2 March 2006, the building has been a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registration number 237).

#### Gyeonghuigung Annex of Seoul Museum of Art

Gyeonghuigung Annex of Seoul Museum of Art was established in July 2003 with renovation of the 600-year-old Seoul Memorial Hall into museum. The annex was first used as the Seoul 600-year-old Memorial Hall in 1994, and used as an exhibition space between August 1995 and May 2002, before Seoul Museum of Art opened in the former Supreme Court building in May 2002.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Gyeonghuigung Annex of Seoul Museum of Art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은 2002년 5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경희궁지 내에 개관하였다. 애초에 1985년 서울특별시 박물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경희궁지 내에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사적지 파괴라는 시각에서 비판적 여론이 지속되어 고전하다가 결국에 규모를 축소하여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아 1993년 12월 착공하였다. 2001년 9월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5월 21일 개관하였다.

박물관 사용의 부지는 경희궁지 내에서도 1910년 일제에 의해 세워진 경성중학교를 전신으로 하는 구 서울 중·고등학교의 대운동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다. 조선왕조 280여 년간 여러 왕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경희궁은 일본의 침략기인 1907년부터 1910년에 걸쳐 강제로 철거되었는데, 당시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일본인을 위한 학교였던 경성중학교가 들어서면서 남아있던 중요한 전각들이 대부분 헐려나가고 궁터 역시 철저히 파괴되고 변형된 결국 현재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거기에 6.25전쟁 기간에 미군부대가 진주하여 병영으로 쓰는 바람에 다시 한번 크게 파괴되었다. 구 서울고등학교가 강남구로 이전하면서 현대건설이 사옥신축을 위해 매입하였다가 연수원으로 이용해왔던 것을 서울시가 매입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을 설계한 건축가 김종성은 전통과 역사를 상징하는 경희궁지 안에 일련의 입방체들과 격자의 조합으로 형성된 매스에 현대공업기술의 산물인 철제 및 유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건물을 계획한다. 그러나 전통건축을 의식한 색채의 적용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은 기존의 전통건축과 대조적이면서 전체적으로 단아한 현대건축의미를 갖추게 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현재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공공미술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장소는 역사상 민족의 아픔을 간직하고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공공의 기억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Museum of History opened in May 2002 on the grounds of Gyeonghuigung (Gyeonghui Palace) in historic central Seoul.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building was initially created in 1985, but construction was delayed due to public concern that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building within the palace walls would detract the site's cultural heritage. Accordingly, the original building plans were greatly reduced and were finally authorized by th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September 1993 and the museum opened on 21 May 2002.

The site on which the museum sits was used as a main playground for Kyungsung Middle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in 1910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Between 1907 and 1910, almost the entire palace, which had been used as a residence for about ten kings of the Joseon dynasty over a period of 280 years, was destroyed by the Japanese. With the 1910 installation of Kyungsung Middle School for Japanese citizens, the parts of the palace left standing were razed. After colonial rule, the site was greatly damaged again during the Korean War, when it was used as a military hospital by the U.S. Army. After the war, Seoul High School used the site, before it was purchased by the Hyundai construction company to build their new company build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ter purchased the site and restored the palace to its current state.

The Seoul Museum of History was designed by architect Kim Jong Sung. His plan incorporates a utilitarian use of modern industrial materials such as steel and glass that surround a simple mass. The colors of Kim's structure complement the surrounding traditional architecture of Gyeonghui Palace, yet the straight lines and unadorned features of his façade present a dynamic contrast to the historic presence of the site.

Currently, the Seoul Museum of History serves its purpose as a public museum that presents the history and culture of Seoul,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ite of the museum is one related to a shared memory, reinforcing the story of Seoul's turbulent history.

###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이화학당은 1886년 감리교 여성교사 스크랜턴에 의해서 정동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한옥교사를 사용하다가 1899년 양옥교사를 지었는데 6.25 당시 파괴되고 1915년에 지은 심슨기념관만이 현존하고 있다.

1910년대에 이르러 부족한 교실을 늘리기 위해 당시의 학당장 율루 프라이가 1913년에 정동 31번지 일대의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건물이 ‘심슨홀’이다. 이곳은 일찍이 언더우드 목사가 경신학교의 전신인 고아원을 개설했던 곳으로, 1897년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서 사들여 시중원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건축 비용은 미국 컬럼비아 리버지회의 홀부룩이 희사한 기금으로 충당하였는데, 그 당시 세상을 떠난 그녀의 동생 사라 심슨을 기리는 뜻에서 ‘심슨홀’로 명명되었다.

이후 1922년 3월에는 건축가 이명원을 통하여 심슨홀 서편(현재 이화여고 동문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곧장 보이는 측면)에 280평 규모의 교사 증축에 착수하였으며, 이 공사는 그 해 8월에 준공을 보았다. 이로써 심슨홀은 지하층을 포함하여 4층으로 크고 작은 교실을 합하여 모두 24개의 공간을 갖추게 되었다. 이 건물은 통상 ‘학관’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주로 고등보통학교에서 사용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이화여중의 교사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1960년 7월에는 새로 증축에 착수하여 1961년 8월에는 총건평 639평에 달하는 큰 건물로 변모하였다.

심슨기념관은 건물의 원형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 현재는 재단사무실과 특별활동실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전면의 아치창과 석재 키스톤이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건물전면 중앙에 현관과 계단실을 배치하는 중앙 복도시식으로 일제시대 미션 계통의 학교건물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2002년 2월 28일 등록문화재 제3호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서울 중구 정동 32-1)로 등록되었다.

### Simpson Memorial Hall

Ewha College was first established at the house of Presbyterian missionary Mrs. M. F. Scranton in 1886. Simpson Memorial Hall was built in 1913 by Miss Lulu E. Frey (1868–1921), principal of the college at the time, who purchased the land to meet the need for more classrooms. The site had been the home for an orphanage run by Reverend Underwood and Sijongwon, a government agency that managed the affairs of the royal family.

The construction was funded by Miss Holbrook of Columbia River Brach, who named the building Simpson Memorial Hall in commemoration of Sarah Simpson, her sister who passed away around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After an expansion in March 1922, Simpson Memorial Hall, then simply called “the academy,” housed 24 classrooms and was used mainly as a high school building. After Korean independence in 1945, the building was used by Ewha Girl's Middle School and in July 1960, another expansion was begun, resulting in the present-day structure with total area of more than 2100 square meters.

Currently, the building is being used as office space and as a center for student activities. Maintaining its original form, the building is the archetype of the “mission school” architecture popular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to this day its windows and keystones retain their decorative features that highlight the building's uniqueness. Simpson Memorial Hall is the only building of the original school remaining today, and it has been a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ince 28 February 2002 (Registration Number 3).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Simpson Memorial Hall



- A** 서울시립미술관
- B** 서울시립미술관 경회궁분관
- C** 서울역사박물관
- D**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 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
- ⑩ ⑪ ⑫ 2호선 시청역 10, 11, 12번 출구
- ⑤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 ⑥ ⑦ 5호선 광화문역 6, 7번 출구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서울시 중구 30 미술관길 (37 서소문동)  
www.seoulmoa.seoul.go.kr

서울시립미술관 경회궁분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번지  
www.seoulmoa.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50번지  
www.museum.seoul.kr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서울시 중구 정동 32번지  
www.ewha.hs.kr

- A** Seoul Museum of Art
- B** Gyeonghuigung Annex of Seoul Museum of Art
- C** Seoul Museum of History
- D** Simpson Memorial Hall

- ① Line 1: City Hall, exit 2
- ⑩ ⑪ ⑫ Line 2: City Hall, exit 10, 11 and 12
- ⑤ Line 5: Seodaemun, exit 5
- ⑥ ⑦ Line 5: Gwanghwamun, exit 6 and 7

Seoul Museum of Art  
30 Misulgwan-gil (37 Seosomun-dong),  
Jung-gu, Seoul  
www.seoulmoa.seoul.go.kr

Gyeonghuigung Annex of Seoul  
Museum of Art  
2-1 Sinmunno 2 ga, Jongno-gu, Seoul  
www.seoulmoa.seoul.go.kr

Seoul Museum of History  
50 Saemunan-gil, Jongno-gu, Seoul  
www.museum.seoul.kr

Simpson Memorial Hall  
of the Ewha Girls High School  
32 Jeongdong, Jung-gu, Seoul  
www.ewha.hs.kr



<b>전시 기획팀</b>	<b>전시 운영</b>	<b>출판물</b>
총감독 김선정	홍보 및 행사 운영 (주) 두미르 배은아	발행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큐레이터 클라라 킴 니콜라우스 샤프하우젠 후미히코 수미토모	해외 홍보 나탈리 하르트예스	편집인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장
<u>전시과 큐레이터</u> 최관호 정효임	<u>웹사이트 프로젝트</u> 리하르트 페이헌 박재용	<u>발행처</u> 서울시립미술관
<u>코디네이터</u> 김나정 권주연 김난영 이유진	<u>전시 구성</u> (주) 지온 아트 앤 디자인	<u>발행일</u> 2010년 9월
<b>전시 행정</b>	<u>공간 디자인</u> 최춘용	<u>편집 진행</u> 배은아 이성민 앤디 세인트 루이스
<u>경영지원부장</u> 임질택	<u>기술 지원</u> 멀티텍	<u>그래픽 디자인</u> 솔기와 민 인진성
<u>학예연구부장</u> 이수균	<u>운송</u> (주) 엘앰비 파인아트	<u>글쓰기</u> 김선정 클라라 킴 니콜라우스 샤프하우젠 후미히코 수미토모
<u>총무과장</u> 이윤근	<u>오디오 가이드 (내레이션)</u> 김지은 존-제임스 호드슨	<u>클래스</u> 김영하 잘랄 투픽 권주연 김나정 김난영 정효임 최관호 라이언 이누에
<u>교육홍보과장</u> 곽태수	<u>프로듀싱</u> miiruu www.miiruu.com	<u>번역</u> 강여울 권진 김정복 김지영 문혜진 박재용 송미경 이경진 이용건 파멜라 미키 에바 후텐라우크
<u>수집보존과장</u> 정혁	<u>번역</u> 정희은 엄미정 김태현	<u>한글 감수</u> 김수기
	<u>자막</u> 홍승범 김혜경	<u>영문 감수</u> 로라 이와사키
	<b>자문위원회</b>	
	위원장 노경조	
	부위원장 강태희	
	자문위원 김미진 심철웅 양창호 오병욱 조덕현 조은정 최승훈	
	<u>간사</u> 장민한 (전시과장)	

시각 아이덴티티 디자인  
스튜디오 람블/홍부르거

**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관광공사  
몬드리안 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  
주한 영국문화원 (프로그래밍 파트너)  
주한 프랑스 대사관  
프랑스 문화원  
브리티시 컬럼비아 예술위원회

**협찬**  
SK 텔레콤  
경방 타임스퀘어  
삼성전자  
한국엠포  
매일유업  
하이트맥주

**협력**  
서울역사박물관  
이화여자고등학교  
MBC 문화방송  
한국경제신문  
사무소  
인투모스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움주신 분들**  
윤한솔  
조재희  
최다영  
클라우드리아 페스타나

www.mediacityseoul.or.kr  
www.seoulmoa.seoul.go.kr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저작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10 Seoul Museum of Art  
All rights reserved.

<b>Exhibition</b>	<b>Exhibition Organization</b>
<u>Artistic Director</u> Sunjung KIM	<u>Public Relations &amp; Exhibition Management</u> Dumir Ltd. Enna BAE
<u>Co-curators</u> Clara KIM Nicolaus SCHAFHAUSEN Fumihiko SUMITOMO	<u>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u> Nathalie HARTJES
<u>Exhibition Division of Seoul Museum of Art</u> Kwanho CHOI, Curator Hyoim JUNG, Curator	<u>Website / Web Projects</u> Richard VIJGEN Jaeyong PARK
<u>Coordinators</u> Najung KIM Juyeon KWON Nanyoung KIM Youjin LEE	<u>Exhibition Architecture</u> ZION art and design
<b>Exhibition Administration</b>	<u>Exhibition Design</u> Choon CHOI
<u>Director of Management &amp; Administration Bureau</u> Jilteak RIM	<u>Technical Support</u> Multitech (EUM Hyunsu)
<u>Director of Curatorial Bureau</u> Soukyoun LEE, Chief Curator	<u>Shipping</u> L&B Fine Art Service Co., Ltd.
<u>Director of General Affairs Division</u> Younkun LEE	<u>Audio Guide</u> Ji Eun KIM Jon-James Hodson
<u>Director of Education &amp; Public Relations Division</u> Taesoo KWAK	<u>Producing</u> miiruu www.miiruu.com
<u>Director of Collection &amp; Conservation Division</u> Hyuk CHUNG	<u>Translation</u> Hee Eun JUNG Mijung EUM Taehyun KIM
	<u>Subtitle</u> Seungbum HONG Hyekung KIM
	<b>Advisory Committee</b>
	<u>Chairman</u> Kyungjo ROE
	<u>Vice Chairman</u> Taehi KANG
	<u>Members of Committee</u> Mijin KIM Cheolwong SIM Changho YANG Byungwook OH Duckhyun CHO Eunjung CHO Seunghoon CHOI
	<u>Organizer (acting)</u> Minhan JANG, Director of Exhibition Division, Senior Curator

<b>Publications</b>	<b>Supported by</b>
<u>Published by</u> OH Se-Hoon, Mayor of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Korea Tourism Organization Mondrian Foundation Japan Foundation British Council (Program Partner) Embassy of France Centre Culturel Français British Columbia Arts Council
<u>Edited by</u> YOO Hee-Young, Director of Seoul Museum of Art	<b>Sponsored by</b> SK Telecom Kyungbang Times Square Samsung Electronics Epson Korea Maeil Dairies Co. Hite Brewery Co.
<u>Editorial Staff</u> Enna BAE Sungmin LEE Andy St. Louis	<b>Cooperated by</b> Seoul Museum of History Ehwa Girls' High School Munhwa Broadcasting Corp. (MBC) The Korea Economic Daily Samuso: INTOMO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Studies
<u>Contributors</u> Sunjung KIM Clara KIM Nicolaus SCHAFHAUSEN Fumihiko SUMITOMO Young-ha KIM Jalal TOUFIC Juyeon KWON Najung KIM Nanyoung KIM Hyoim JUNG Kwanho CHOI Ryan INOUE	<b>Thanks</b> Hansol YOON Jae Hee CHO Michelle M CHOI Claudia PESTANA
<u>Translation</u> Yoewool KANG Jin KWON Jeong-bok KIM Chi-Young KIM Hyejin MUN Jaeyong PARK Meekyung SONG Kyoung-Jin LEE John U. K. LEE Pamela MIKI Eva HUTTENLAUCH	
<u>Korean Editor</u> Suki KIM	
<u>English Editor</u> Laura IWASAKI	
<b>Graphic Identity Design</b> Studio Lambl/Homburger	



지아드 안타르 26-27 163  
타렉 아투이 28-29 163  
루카스 밤보찌 / 카오 기마랑이스 /  
벤토 메갈랑이스 30-31 165  
야엘 바르타나 32-33 166  
블라스트 씨어리 34-35 167  
마농 데 부르 36-37 168  
마크 브래드포드 38-39 169  
안토니오 카바에로 40-41 170  
조덕현 42-43 171  
아브라암 크루스비에가스 44-47 172  
지미 더햄 48-49 173  
라이너 가날 50-51 174  
더글러스 고든 52-53 175  
실파 곱타 54-57 176  
이즈미 타로 58-59 177  
아드리아 줄리아 60-61 178  
아네테 켈름 62-63 179  
김범 64-65 180  
김순기 66-67 181  
김성환 68-69 182  
고이즈미 메이로 70-73 183  
미키 크라츠만 74-75 184  
에릭 판 리스하우트 76-77 185  
임민욱 78-79 186  
사라 모리스 80-81 187  
데이만타스 나르케비치우스 82-83 188  
뚜안 앤드루 응우옌 84-85 189  
노순택 86-87 190  
캐서린 오피 88-89 191  
크리스토돌로스 파나요투 90-91 192  
박찬경 92-93 193  
왈리드 라드 94-95 194  
주디 라돌 96-97 195  
이주요 98-99 196  
빌럼 데 로이 100-101 197  
율리카 루멜리우스 102-103 198  
티노 세갈 104-105 199  
앨런 세쿨라 106-109 200  
던컨 스피크먼 110-111 201  
서도호 112-113 202  
나스린 타바타바이  
& 바박 아프라시아비 114-115 203  
아피чат퐁 위라세타쿤 116-119 204  
시징맨 120-123 205  
양아치 124-125 206  
토비아스 칠로니 126-127 207

Ziad ANTAR 26-27 163  
Tarek ATQUI 28-29 163  
Lucas BAMBOZZI / Cao GUIMARÃES /  
Beto MAGALHÃES 30-31 165  
Yael BARTANA 32-33 166  
Blast Theory 34-35 167  
Manon DE BOER 36-37 168  
Mark BRADFORD 38-39 169  
Antonio CABALLERO 40-41 170  
CHO Duck Hyun 42-43 171  
Abraham CRUZVILLEGAS 44-47 172  
Jimmie DURHAM 48-49 173  
Rainer GANAHL 50-51 174  
Douglas GORDON 52-53 175  
Shilpa Gupta 54-57 176  
IZUMI Taro 58-59 177  
Adrià JULIÀ 60-61 178  
Annette KELM 62-63 179  
KIM Beom 64-65 180  
KIM Soun Gui 66-67 181  
Sung Hwan KIM 68-69 182  
KOIZUMI Meiro 70-73 183  
Miki KRATSMAN 74-75 184  
Erik VAN LIESHOUT 76-77 185  
Minouk LIM 78-79 186  
Sarah MORRIS 80-81 187  
Deimantas NARKEVIČIUS 82-83 188  
Tuấn Andrew NGUYỄN 84-85 189  
NOH Suntag 86-87 190  
Catherine OPIE 88-89 191  
Christodoulos PANAYIOTOU 90-91 192  
PARK Chan-Kyong 92-93 193  
Walid RAAD 94-95 194  
Judy RADUL 96-97 195  
Jewyo RHII 98-99 196  
Willem DE ROOIJ 100-101 197  
Julika RUDELIUS 102-103 198  
Tino SEHGAL 104-105 199  
Allan SEKULA 106-109 200  
Duncan SPEAKMAN 110-111 201  
Do Ho SUH 112-113 202  
Nasrin TABATABAI  
& Babak AFRASSIABI 114-115 203  
Apichatpong WEERASETHAKUL 116-119 204  
Xijing Men 120-123 205  
Yangachi 124-125 206  
Tobias ZIELONY 126-127 207



